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만큼 자식들의 학교성적이 좋지 않을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몹시 화를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아침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곳에는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세개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 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입니다.

자식들이 밤늦게 돌아올때에 어머니는 열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열번 현관을 쳐다봅니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최고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서양속담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집에 있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남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따라 아버지의 인상은 달라집니다

<4살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수있다. <7살때> 아빠는 아는것이 많다.

<8살때> 아빠와 선생님중 누가 더 높을까? <12살때> 아빠는 모르는것이 많아!

<20살때> 우리 아با요? 세대차이가 나요. <30살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40살때> 어보! 우리가 이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살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60살때>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짙고 울음은 열배쯤 됩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읊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소리로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똥동산의 바위같은 이름입니다. 마을앞의 은행나무같은 이름입니다.

교회목표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교회생활지침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4권 1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4월 21일
☎520-9464/021-292-1639,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천하장사가 우는이유?

천하장사가 우는이유는?



코리 텐 북 여인은 제2차 세계대전당시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죽음의 직면하는 고난을 겪다가 극적으로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는 수용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충족시키셨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용소는 매우 더러운데다 어디에나 벼룩이 있었습니다. 코리와 같이 수감되었던 언니 벳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데살로니가전서 5:18의 말씀이 그들을 향한

썩은 이빨하나가 그후 웅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벼룩 투성인 곳에서 지내는 코리 텐 북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감사가 나와야 하는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용소안에서 지낼때에 그들이 기도나 찬송을 하지 못하도록 독일군인들이 제지 하러 오지 않는 것에 의아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수용소를 나와서야 코리는 왜 군인들이 자기의 막사에 와서 기도와 찬송을 못하게 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안의 방에는 벼룩이 너무 많았습니다. 군인들은 벼룩을 피하기 위해 수용소 막사안에 얼씬도 하지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감자들은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성경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찮은 벼룩을 들어 독일군인들을 수용소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신 하나님! 항우장사의 힘자랑도 이빨하나 썩게 하심으로 그 무지막한 힘을 끔찍못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 있을 때 도중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걸 자신이 없다면 그곳을 떠나라 너의 그런 모습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결코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수의 의복과 몸짓을 흉내내지 마라 몇 개월 후에 그것이 지나가면 다른 가수를 흉내내기 위하여 돈과 시간과 인격을 소모해야 한다
--	--

주 일 예 배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3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10(시 27)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송 Hymn	487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임혜자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디모데후서 3:14-17(신345)	인도자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성가대 찬양 Choir	'하늘위의 주'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김의중 목사 (임마누엘교회)
찬송 Hymn	209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 tory Prayer	(기도후 착석)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믿음 더욱 굳세라' (1절:이효은.2절:다같이)	다 같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도자
축도 Benediction		김의중 목사

<4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Tea Time	주일안내
7일	양경배	김영길	최재학.정덕수	최재학.정희자
14일	윤형권	김순자	전병주.권용일	권용일.이지영
21일	임혜자	김종건	김교섭.김영길	박병민.이기중
28일	정덕수	노은숙	김종건.박기원	박정자.정희자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담당들은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
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12시 | 수요일예배 7:30 pm | 금요일새벽기도: 6:00 | 아동.학생.청년부: 주일12시

교회소식

- 교향강단:오늘은 3교회(갈보리,임마누엘,주님의교회) 교향강단 주일입니다.
*갈보리교회(임마누엘교회 김의중 목사).임마누엘교회(주님의교회 김화수 목사)
주님의교회(갈보리교회 김성국 목사)
*오늘 말씀:임마누엘 교회 김의중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삭줍기'봉헌주일:다음주일에 드립니다.
* Silver Coin으로 모아진 헌금은 2명의 결식아동(필리핀,태국)에게 보내집니다
- '등록교우 성경공부'8기(구원론)두번째 모임
*일시:월요일(22일) 저녁 7:30. 교회
*강은미.김경구.김시홍.김영경.김종원.마경춘.민광호.오지영.윤주야.장현중.
정관영.정이지.최기향.최득수.황경임.
- 제1 남선교회 월례회(예고):다음주일 예배 후 Mt.Eden에서 신입회원 환영회로 모입니다
- 피택자 교육:항존직 피택자 교육과 기도회를 갖습니다
*일자:매달 1,3주 화요일 저녁 7:30. 교회
*교육시작일: 금주 화요일(23일)
- 도서 대출: 오늘부터 주방에 있는 도서함에서 Tea time 시간에 대출 합니다
*계속 도서 기증을 바랍니다 *담당:박병민.권용일.윤형권
- 중등부 예배: 12시에 Hall에서 드립니다.
*설교:임성광 목사.교사:윤한나.김철홍.정경희.김태희
세월이 흘러 이민 2세,3세가 될수록 미국의 한인교회처럼 학생들은 영어예배로
드러야 할 때가 오겠지요? 그래도 모국어를 알면 고국이 있습니다.
- 결혼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최득수,오지영 집사(25일)



"당신 머리 생겨난 흰 머리칼도
당신 눈가 늘어난 잔 주름살도
모두다 아름다운 우리 사랑의 두께" 오래 오래 행~~복하세요

- 등록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장현중 장로.윤주야 집사.영준 ☎ 479-2787 ☐ 40 Bayside Dr. Browns Bay
- 추워지는 겨울:의자에 방석이 준비되지 않아 더 추위를 느낍니다.
방석이 준비 될때까지 가정에서 방석 1개씩 기증바랍니다.
- 교우소식
*박정자 집사:한국에서 친정아버지 장례마치시고 귀국.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드립니다
*이사:이재영,김경숙 집사. ☎449-1911 ☐12 Sunnynook Rd. Sunnynook
박병민,이기중 집사(26일 예정)☎449-1777 ☐38 Meadowvale Ave.Forrest Hill
"타박타박 시오리길 걸어가면 외숙모 달려나와 반기던 어릴 적 외가 같던 집"
그런 포근하고 행복한 새집 되세요.
*기도부탁드립니다: 정덕수 집사 Northshore Hospital입원